

제26회

가치봄영화제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2025. 09. 02. (화) ~ 09. 05. (금)



제26회

가치봄영화제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목차

04	인사말
05	축사
06	명예고문
07	홍보대사
08	조직구성 / 스태프
09	도움주신 분들
10	시상내역 / 예선 심사 및 프로그램
11	심사위원
12	개막작
14	PDFF경쟁
25	장애인미디어경쟁
36	가치봄 마주봄
42	가치봄 제작지원
45	새로봄 수어영화
50	색인

인사말



채태기

가치봄영화제 조직위원장

존경하는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제26회 가치봄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온 가치봄영화제가 9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축제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가치봄영화제는 지난 시간 동안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음성(가치봄 버전)을 통해 영화 관람의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시선을 담은 다섯 가지 섹션으로 관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PDF 경쟁과 장애인미디어경쟁,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가치봄 마주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줄 가치봄 제작지원, 그리고 포용의 시대를 여는 새로봄 수어영화까지, 장애를 넘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과 새로운 공감의 언어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향한 가치봄영화제의 굳건한 신념입니다.

이 빛나는 자리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가치봄영화제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감동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26회 가치봄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영화제를 향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화는 강력한 문화적 자산이자,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포용적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매개체입니다. 가치봄영화제는 지난 26년간 이러한 영화의 긍정적 영향력을 실현하고, 모든 이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글자막과 화면음성해설을 아우르는 '가치봄 버전'의 제공과 농인 관객들을 위한 수어 통역 영화 상영은 문화적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선보일 31편의 다채로운 상영작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관객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과 폭넓은 공감을 선사하며,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소중한 영화제를 열정과 헌신으로 준비해 주신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과 스태프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치봄영화제가 영화 산업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모든 이가 함께 영화의 감동을 나누는 선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6회 가치봄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영화가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고문



차훈

가치봄영화제 명예고문

안녕하십니까? 가치봄영화제 명예고문 차훈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는 계절, 모두의 마음을 영화로 하나 될 제26회 가치봄영화제가 마침내 그 문을 엽니다.

저는 매해 이 시기가 되면, 영화가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영화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됩니다. 가치봄영화제는 지난 26년 동안 이러한 영화의 본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의 장을 꾸준히 일궈왔습니다.

총 31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변함없이 소중한 수어영화 섹션은 모든 관객이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을 더해줍니다.

저는 가치봄영화제의 명예고문으로서 지난 9년간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하며, 영화가 세상에 선물하는 변화의 씨앗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상영하는 것을 넘어, 한 편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큰 보람과 영광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변함없는 열정으로 영화의 가치를 넓혀가는 가치봄영화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치봄영화제에 오셔서 영화가 주는 감동과 위로를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김보라

제26회 가치봄영화제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제26회 가치봄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김보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모두가 함께 영화를 나누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곳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설렙니다.

저는 평소에도 ‘영화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위로, 그리고 공감의 순간들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치봄영화제는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 버전은 물론 농인 관객들을 위한 수어영화 등, 모든 관객이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9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총 31편의 귀한 작품들이 관객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과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26회 가치봄영화제가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영화를 통해 함께 꿈을 키우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구성

조직위원장

채태기 (사)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운영위원회

정희찬 (사)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
김혜진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스태프

기획 / 운영

윤요섭 이준태 김효선

프로그램

서도은

운영지원

최연서 오상화 최다혜 이상현 이정인
인혜진 허윤지 양희준 윤희진

한글자막 제작

(주)이투엘네트웍

화면해설 제작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부설 미디어진흥원

영상 패키징

(주)CJ올리브네트웍스 (주)에이아이톡

기술지원

진미디어

포스터

전동민

디자인

오롯디자인

인트로 / EPK

브랜픽

도움주신 분들

영화진흥위원회

장광수 이대현 김한솔 서하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황덕경 신진숙 박새영 홍유정

CJ올리브네트웍스

신봉호 오동민 김지연 조민정

이투엘네트웍

배경환

에이아이톡

배경훈 이동형

롯데시네마

윤일용 박소진 이용석

오롯디자인

홍하얀

차흥아르더

차흥 양희윤



시상내역

제26회 가치봄영화제는 3인의 심사위원들이 장애감수성과 영화의 완성도, 독창성을 고려하여 PDFF경쟁 및 장애인미디어경쟁 부문의 영화 4편을 선정하여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한다.

PDFF경쟁			장애인미디어경쟁		
대상	1편	3,000,000원	최우수상	1편	2,000,000원
우수상	1편	1,000,000원	우수상	1편	1,000,000원
관객상	1편	500,000원	관객상	1편	500,000원

**영화제 운영상황에 따라 시상 카테고리 및 명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선 심사 및 프로그램



서도은
프로그램머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영화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도시영화제 등의 영화제를 거쳐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역임했으며 현재 가치봄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다.

심사위원



남태제

- 2015~2020년 뉴스타파 <목적자들> 상임연출
- 2019년 다큐멘터리 영화 <월성> 연출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
-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바로 지금 여기> 프로듀서, 공동연출
- 2023년~현재 새알미디어 대표 PD



박성림

영화를 전공하였으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한국영상자료원, 부천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비 지원, 아카이브 관리, 기술 지원 등의 영화 상영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유통배급지원팀장으로서 독립영화의 유통 활성화와 온라인 기획전 등 여러 상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낮익은 여름>, <주말 동안> 등 다수의 단편영화도 연출했다.



설경숙

2007년 단편 <불편한 식사>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영국 골드스미스대학 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이론을 공부했다.
<공부 차>(2017), <불편>(2019), <씨앗의 이름>(2020), 등의 작품들이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전시되었고 장편 다큐멘터리 <씨앗의 시간>으로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했다.
EBS국제다큐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 페스티벌 등의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고 영상예술 연구와 제작을 병행하고 있다.

제26회 가치봄영화제의 개막작은 정성준, 박동진 감독의 <봄의 언어>입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두 아이가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단편영화입니다.

거제에 사는 성준은 청각장애가 있는 반 친구 봄이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수어 노래 시간에 환한 얼굴로 노래하는 봄이의 모습에 반한 그는 봄이의 주변에 더 머물기 위해 교실 청소를 자청하고, 몰래 전달하기 위한 쪽지를 쓰고, 거울 앞에서 수어를 연습하는 등 봄이에게 마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태권도 검은띠를 빌려 매고 등교도 해보지만, 무심한 반 아이들의 방해 때문에 그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봄의 언어>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은 겪었을 서툰 감정과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마음을 전하는 매개로서의 언어가 단지 소리 말이나 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손으로 동요를 부르는 아이와 손 글씨 쪽지를 쓰는 아이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섬세하게 보여주는 따뜻한 작품 <봄의 언어>는 올해 가치봄영화제의 문을 여는 데 더없이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봄의 언어

극영화 | 2025 | 24분 전체

The Language of Bom



거제 바닷가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성준. 같은 반 봄이의 수어 공연을 본 날, 사랑에 빠지고 만다. 봄이에게 다가갈 용기를 끌어내기 위해 태권도장에서 검은띠를 빌려서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성준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리한다.

<봄의 언어>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지금을 돌아보자고 제안하는 이야기이다.



정성준 — 1997년 경상남도 거제 출생. 2019년 고향인 거제에서 조선소 인수합병 문제로 인한 거제 조선소와 가족의 위기를 다룬 영화 <외도(外島)>로 처음 영화 제작과 함께 연출을 시작하였다. 이후 <블루시티서울> 등 지역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2022 <사라>
2021 <블루시티서울>



박동진 — 2006년 장애 소재의 다큐멘터리 <세상을 향한 나비의 몸짓>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영화, 음악 분야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다큐멘터리 영화 및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창작 작업 등 예술 활동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2017 <4줄의 착한 하모니>
2016 <경계를 넘어서>

올해 가치봄영화제의 PDFF경쟁부문에는 장애와 장애인을 다룬 10편의 장편 및 단편 영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다루는 다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개막작인 <봄의 언어>를 비롯해 <모범상>, <새이와 도하>는 장애가 있는 반 친구의 곁에서 그들과 소통하고 우정을 쌓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나의 자립 일지>에서는 시설을 나와 자립을 시작하는 인물의 일상을 따라가며 탈시설의 첫걸음에 동행합니다. <부러지고 싶은 마음>은 사고 이후 장애인이 된 인물이 겪는 아픈 마음과 그를 보듬고자 하는 친구와의 심리적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탁란>은 아이가 장애인 판정을 받기를 바라는 엄마의 모순된 마음을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라는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꿈과 일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결국 서로 의지하게 되는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원더>와 무용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소영과 선생님의 하루하루를 진솔한 몸짓과 대화로 기록한 <소영의 노력>은 장애인과 예술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챌린저>와 <달팽이 농구단>을 통해서, 격렬한 장애인 휠체어 스포츠의 생동감 넘치는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사와 형식으로 장애인의 삶을 보다 깊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자립 일지

다큐멘터리 | 2025 | 81분 전체

My Independent Living Notes



초현은 20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왔다. 시설에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초현은 시설을 떠나 자유롭게 살기로 마음먹는다. 자신을 붙잡으려는 시설 사람들의 거친 말과 괴롭힘을 견뎌내고 시설 밖으로 나온 초현은 피플퍼스트 동료들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많지만 초현은 친구, 동료들과 함께하며 자립생활에 적응해 간다. 초현의 탈시설 자립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초현은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추병진 — 1993년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다수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영상으로 기록해 왔다.

2020 <기억의 집>
2020 <꺾이지 않은 38년, 원풍 해고 노동자>
2023 <발달장애인이 투쟁할 때>
2024 <시설 밖, 나로 살기>

달팽이 농구단

극영화 | 2024 | 119분 전체

Go Snails



휠체어 농구하면 장애인 농구로 알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다. 1990년대 코트의 여우로 불렸던 국가대표 명가드 이원우 감독과 그의 제자 한사현 감독의 헌신적인 휠체어 농구 사랑을 영감으로 한 <달팽이 농구단>은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온 중년의 농구 스타와 안하무인 농구 천재 그리고 사고로 둥근 강철 다리를 가진 사나이들이 휠체어 농구로 하나 되어 꿈을 완성해 가는 휴먼 액션 스포츠이다.



고은기 — 2022 <넌 누구니?>
2021 <사랑의 학폭위>
2018 <타클라마칸>
2010 <화성에 가다>
2008 <내사랑 유리에>

모범상

극영화 | 2024 | 16분 전체

The Good Student



선아는 학교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단짝 친구 소희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에서 선아는 기말고사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나쁜 소식과, 소희를 잘 도와주어 교육청 모범상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다. 성적은 떨어졌지만 상을 받는다고 하니 선아의 기분은 그래도 좋아진다. 그날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칭찬할 학생이 있다고 말하며, 소희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전교 30등이나 올랐다고 칭찬해 준다. 소희 옆에 앉은 선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성적이 오르는 소희가 계속해서 공부와 관련된 부탁을 해오자 점점 지쳐간다.



박호범 — 1997년 서울 출생으로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을 졸업했다.
2022 <동우>

봄의 언어

극영화 | 2025 | 24분 전체

The Language of Bom



거제 바닷가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성준. 같은 반 봄이의 수어 공연을 본 날, 사랑에 빠지고 만다. 봄이에게 다가갈 용기를 끌어내기 위해 태권도장에서 검은띠를 빌려서 허리에 질곤 동여매고 성준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리한다.

<봄의 언어>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지금을 돌아보자고 제안하는 이야기이다.



정성준 — 1997년 경상남도 거제 출생. 2019년 고향인 거제에서 조선소 인수합병 문제로 인한 거제 조선소와 가족의 위기를 다룬 영화 <외도(外島)>로 처음 영화 제작과 함께 연출을 시작하였다. 이후 <블루시티서울> 등 지역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2022 <사라>
2021 <블루시티서울>



박동진 — 2006년 장애 소재의 다큐멘터리 <세상을 향한 나비의 몸짓>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영화, 음악 분야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다큐멘터리 영화 및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창작 작업 등 예술 활동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2017 <4줄의 착한 하모니>
2016 <경계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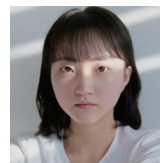
부러지고 싶은 마음

극영화 | 2024 | 28분 전체

Leave Me Not



비장애인 육상선수였던 여진이 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된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강은 여진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자 한다. 혼자이고 싶은 여진과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는 강은 서로 갈등한다.



이효정 — 1999년 청주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했다. <부러지고 싶은 마음>은 감독의 8번째 연출작이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24 <셀위댄스>
2021 <기억의 초상>
2016 <피망이 좋아>
2020 <세탁소>

새이와 도하

극영화 | 2025 | 19분 전체

Saei and Doha



같은 반 옆자리인 이유로 뇌성마비 학생인 도하를 맡아오던 ‘지킴이’ 새이.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하가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주변 어른들은 새이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하지만 새이는 도하에게 선뜻 사과하기 어렵다.

<새이와 도하>는 어른들이 맡긴 역할로 인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배진아 — 2002년생. 대학에서 영화 촬영을 전공했다. 2025년작 <새이와 도하>는 첫 연출작이다.

소영의 노력

다큐멘터리 | 2024 | 79분 전체

Conatus



소영은 밤마다 무대를 떠올린다. 소영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소영은 ‘일반인’의 몸을 상상하며 춤을 춘다. 소영은 칭찬을 경계한다. 희정은 소영의 무용 선생님이다. 희정은 동작을 잘 기억하라고 말한다. 희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 소영과 희정은 공연을 올린다.

다음 날 소영의 일상은 돌아온다. 소영은 자신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소영은 흐르는 물과 계절을 지나 목적지로 향한다.



오재형 —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페인팅 개인전 <8.5의 감성>(2011), <코스모스>(2013)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영상 작업을 시작했다. <피아노 프리즘>(2021), <덩어리>(2016), <블라인드 필름>(2016), <봄날>(2018) 등을 연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영상과 피아노 연주를 결합한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다.

원더

극영화 | 2024 | 29분 전체

Wonder



성준은 소설 쓰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취직한다. 가족에게서 벗어나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게 된 성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고요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소설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대학 동창 댄이 불쑥 그를 찾아온다. 그 이후 고요한 성준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

<원더> 속 이야기는 댄이 성준에게 의존하면서 시작되고 서로의 약함이 드러나면서 이어진다. 둘은 서로의 약함에 기대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신재 — 1982년 서울 출생. 2017년부터 '0set(제로셋)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 연극 연출을 해왔고 2024년 첫 단편 영화 <원더>를 연출했다.

인피니티 챌린저

다큐멘터리 | 2025 | 24분 전체

Infinity Challenger



차량이 부딪치는 듯한 파열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다. 패럴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휠체어 간의 접촉이 가능한 격한 스포츠, 휠체어 럭비다. 지난해 5월, 휠체어 럭비 선수단 충북 인피니티를 찾았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9명의 선수는 휠체어 럭비를 만나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었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그들의 최종 목표는 실업팀이 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강적이 많다. 국내 유일 휠체어 럭비 실업팀 충남, 외국인 선수들로 전력을 대폭 강화한 인천. 충북 인피니티는 더욱 강해진 상대를 꺾고 실업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정용훈 — 1997년 김해 출생.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직 특수부대 팀장 출신 영화 비전공자로 <인피니티 챌린저>가 데뷔작이다.

탁란

Brood Parasitism

극영화 | 2024 | 22분 전체



경계선 지능(비장애)을 가진 아들 이준. 미경은 아들을 위해 장애 판정을 받으려 한다.

<탁란>은 부모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만약 그들이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과연 비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김유진 — 2001년 출생. 성결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2 <매직 아워>
2019 <비밀과 거짓말>

장애인미디어경쟁에서는 장애인이 연출 또는 연기 등으로 제작에 직접 참여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부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는 주제와 더욱 깊이 있는 연출을 선보이는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을 거쳐 총 10편의 작품이 상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인 이종형 님의 인생과 시를 기록한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와,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는 영화감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안보영 프로젝트>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망이 흐른다>와 <지금 만나러 간다>는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유쾌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고 <사랑? 사랑,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진솔하고 공감 가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만든 궤적>은 '장애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존감과 보듬어 안는 마음을 설명합니다. <나는;>은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까칠한 강래씨>는 한 인물의 개성을 유쾌하게 드러내며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인간성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의 삶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주체로 자리하는 장애인미디어경쟁 부문의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장애인 창작의 생생한 현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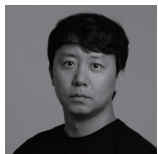
까칠한 강래씨

Grumpy Man

다큐멘터리 | 2024 | 17분 전체



까칠한 말투 뒤에 다정한 마음을 숨긴 강래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의 터줏대감이다. 지적 장애와 뇌전증을 안고 살아가지만 늘 먼저 나서서 후배를 챙기고 짓궂은 농담으로 주위를 웃게 만든다. 차별과 아픔을 견뎌낸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의 소소한 하루는 동료들의 마음을 물들이며 작업장을 조금 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꿔 간다.



이윤구 — 1982년 출생.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까칠한 강래씨>는 첫 영화제 출품작이다.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나는;

I;

극영화 | 2024 | 22분 전체



새롭게 장애인복지관을 다니게 된 해경은 우연히 별난 박하를 마주하게 된다. 복지관 문학반 수업에서 다시 만난 박하가 같은 수업의 천명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일로 불편을 겪었을 해경에게 먼저 미안함의 마음을 전하며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나는>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작품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난 것도, 둥근 것도 아닌, 그저 '나는 나'임을 이야기한다. 수어가 아닌 인공와우를 통해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중심으로 그가 겪는 소통의 어긋남과 주변의 오해 그리고 서로 다른 장애 유형 간에도 존재하는 미묘한 감정의 충돌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주현민 — 2024년에 단편영화 <나는>을 연출하였다.

사랑? 사랑, 사랑!

극영화 | 2024 | 21분 전체

Love? Love, Love!



불의의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된 재아는 세상과 자신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간다. 무기력한 일상 속 유일한 위안은 혼자 그리는 그림뿐이다. 복지관에서 아침마다 조용히 웹툰을 그리는 재아에게 한 선생님이 작은 제안을 건넨다. “웹툰 공모전에 한 번 나가볼래요?” 그 순간부터 재아는 설레는 감정과 사랑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다.

웹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재아는 낯선 이야기들 속으로 발을 들인다. 그 가운데 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진남이 건넨 특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재아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어느새 웹툰의 페이지에는 울고 웃는 사람들의 사랑이 담기기 시작한다.



김숙현 — 2024년에 단편영화 <사랑? 사랑, 사랑!>을 연출하였다.

안보영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 2025 | 16분 전체

The Film Beyond Sight Project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자신의 과거 작품을 보던 감독이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화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한다. 극 중 시각장애인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안나와 새롭게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새로운 영화를 같이 보게 된다.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동시 관람이 가능하게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속에서 영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노영빈 — 1998년 대전 출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다. 2016년 29초영화제 청소년부 대상 수상으로 시작해 단편영화/광고/뮤직비디오 현장에 참여했으며, 5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2025 <살아, 간다>
2025 <전복>
2025 <자축인묘>
2023 <집어, 등>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다큐멘터리 | 2024 | 21분 전체

Mother! How Is the Color of the Sky?



군 시절 시력을 잃었던 나는 점자도서관 봉사를 통해 이종형 시인을 만난다. 그의 삶을 기록하며 배리어프리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 작품을 직접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했다. 나는 사라진 그의 시집을 찾아 전국의 헌책방을 돌고 결국 함께 산 정상까지 오른다. 이 여정은 평범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완성되었다.



방준식 — 환경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 및 조치원필름로맨스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미디어콘텐츠 등에서 수상하였다.

2024 <지구를 살리는 탄소정원>
2024 <어머니의 산 곰배령>

엉망이 흐른다

극영화 | 2024 | 24분 전체

A Messy Day



생일파티에 초대된 지우는 활동 지원사가 갑자기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히 만난 아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휠체어를 타는 지우는 이동하는 곳까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 둘은 과연 제시간에 파티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엉망이 흐른다>는 누군가에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길 자체가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매일 걷고 오르며 내리는 길에 대하여 길을 통한 만남 대하여 이야기한다.



강은정 — 전남 여수 출생. 대학에서 매체를 공부하였고 영상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영화를 만들고 있다. 어둡고 음산한 에너지와 상처받은 마음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만든 궤적

다큐멘터리 | 2024 | 13분 전체

Prints of Us



진이가 가진 장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담았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자신을 싫어하던 진이는 색안경이 결국 자신에게만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진이에게 또 어떤 시간을 선물할까?

장애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아졌지만 위로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감독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백진이 — 2000년12월 출생.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우리의 사랑

극영화 | 2024 | 15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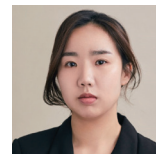
Woori's Love



길을 걷다 뇌전증 증세로 쓰러진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움직임 수업에 늦게 도착한다. 참여자들이 우리를 걱정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수업에 집중한다. 움직임 강사는 우리와 손을 맞대고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교감하고, 우리는 강사와 함께 움직일 때만큼은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느낀다.

한편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뇌전증 장애인으로서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좌절 그리고 일상에서의 위태로운 순간들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술과 감정을 매개로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는 직접 만든 선물을 강사에게 건네려다 또다시 뇌전증으로 쓰러진다. 눈을 뜬 우리는 강사에게 안겨 강사를 바라보고 비로소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인다.



김늘아름 — 1985년 경주 출생. 계명대학교 연극예술과를 졸업했다. 연극과 영화에서 배우와 강사로 활동하며 2021년 단편영화 <집밥>을 연출했다.

2023 <항해자들>
2022 <남희와 복희>
2021 <집밥>

우리의 자리

극영화 | 2024 | 14분 전체

On My Own Time



경계선장애를 가진 예원은 복지관을 찾는다. 예원의 활동을 응원하던 상진을 만나 경계선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토로해 보지만 상진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예원은 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가 마치 이편과 저편 어디에도 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박상진 — 1993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광역시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으로, 2024년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자조모임 GSRC방송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영화 <우리의 자리>를 연출했다.



박성진 — 1985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광역시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재직 중으로, 2024년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자조모임 GSRC방송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영화 <우리의 자리>를 연출했다.

지금 만나러 간다

극영화 | 2024 | 23분 전체

Don't Be Late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만과 정민은 잔뜩 화가 나 있다. 오후 2시까지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둘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부리나케 외출 준비를 한다. 하지만 급하게 잡힌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지금 만나러 간다>는 불편할 수도 있는 사건을 유쾌하게 그리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부터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안한다.



정다은 — 1993년 경기도 수원 출생.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를 졸업했다. 2025년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장애인들과 함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과 소통하고자 영화를 제작하였다.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선보이는 가치봄 마주봄 섹션은 가치봄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으로, 장애와 장애인을 참신한 시선으로 다루는 뛰어난 작품들을 초청해 선보입니다.

<겨울의 빛>은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면서 성적도 유지하고 연애도 잘 하고픈 한 고등학생의 성장 분투기입니다. <오래된 못>은 사소한 일상 속 작은 미스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흥미로운 소품입니다. <산행>은 접경 지역의 산속 마을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잠재된 위험한 긴장감을 함께 포착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친구를 위해 그만의 졸업사진을 찍어주려 노력하는 우정 어린 마음이 담긴 <졸업사진>, 말썽꾸러기 강아지와 병마와 싸우는 어린 동생이 함께 만들어내는 추억을 정겹게 그린 애니메이션 <짹뽕이네 똥항토>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정겨운 작품들입니다.

장애를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평범한 일부로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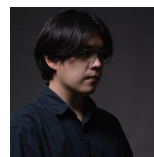
겨울의 빛

극영화 | 2024 | 88분 12

Winter Light



평범한 고교생활을 꿈꾸는 다빈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동생 은서의 등하교를 돕는다. 은서를 위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빈은 해외 교류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해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여행을 꿈꾼다. 고액의 참가비를 벌기 위해 모텔 청소를 시작하지만 상황은 점점 여행에서 멀어진다.



조현서 — 1995년 출생.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고 202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17기 연출 전공을 졸업했다.

2021 <터>
2020 <나무>

산행

극영화 | 2025 | 22분 전체

Undercurrent



접경 지역의 여느 마을. 겹과 솔, 남매는 채집을 위해 풋소리와 사격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뒷산에 오른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부유물은 강 하구를 뒤덮고 있다.

<소년유랑>,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를 통해 공간에 존재하고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각적인 연출로 표현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루리 감독의 신작.



이루리 —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파주에서 태어나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2021), <소년유랑>(2023), <산행>(2025)을 연출했으며, 세 작품은 각각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오래된 못

극영화 | 2024 | 9분 전체

Old Nail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 한 여성은 사진액자를 걸어둔 못이 자꾸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낀다.

누군가의 존재가 없어진 이후에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의 부재 위에 다가오는 새로운 존재는 위협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공병선 — 1993년 서울 출생. 2019년 명지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 컬럼비아대학교 영화 석사를 수료했다. 그의 최근 장편시나리오 <Full Moon>은 선댄스영화제의 Development Track 최종단계로 선발되었고 최근 작업한 단편영화 <Adam's Apple>은 칸영화제의 비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2025 <Adam's Apple>
2024 <Old Nail>
2019 <전임>
2017 <찌르다>

졸업사진

극영화 | 2025 | 27분 전체

Graduation



오랜 투병 생활 중인 중학생 해성은 학기 중에 찍지 못한 졸업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 원진과 학교로 향한다. <졸업사진>에는 해성의 시간을 함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지국이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있다.



신하연 — 1996년생. 성결대학교 영화전공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영화실기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단편 <덕산식구대피소>(2020), <도시의 산>(2020), <서교의 바다>(2024)를 만들었다.

짱뽕이네 똥황토

애니메이션 | 2024 | 26분 전체

Oh! Jjang Ddoong!



짱뽕이네 진돗개 조남이가 귀여운 새끼 여섯 마리를 낳는다. 그중 어미를 쫓 빼앗은 강아지 황토만 남기고 다른 강아지들은 뽀뽀이 헤어지게 된다. 황토는 밥 욕심도 많고 갖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지만 짱뽕이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황토가 사라지고 만다.



박재범 — 1990년 창원 출생. 2009년도에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15년에 졸업하였다. 2019년도에 한국영화아카데미 35기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주)스튜디오요나에서 대표/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2023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
2021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
2019 <스네일맨>
2017 <빅피쉬>

가치봄영화제는 장애를 주제로 하거나 장애인이 참여하는 영상물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전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봄 제작지원은 이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상영하는 부문으로서 장애인영화의 저변을 넓히고 새로운 창작자의 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가치봄영화제의 지속적인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29편의 프로젝트가 사전제작지원에 출품되어 역대 최대 출품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전현지 감독의 <새로고침>과 오재형 감독의 <우리밖에 없어>가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될 예정입니다. 두 작품은 내년 27회 가치봄영화제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가치봄영화제에서는 2024년 사전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두 편이 상영됩니다. <파랑의 파동>은 수영 선수를, <소우주>는 태권도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청춘 드라마로, 젊은 운동선수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과 현실의 갈등, 그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성장의 시간을 섬세한 연출로 나타냅니다.

장애인영화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가능성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가치봄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주

Mikrokosmos

극영화 | 2025 | 35분 전체



청각장애인이자 고등부 태권도 선수인 탄과 어릴 적부터 함께 훈련해 온 비장애인 윤경은 어느 날 관장 상철로부터 태권도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태권도장을 만든 관장이자 탄의 어머니인 수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곳을 집 삼아 지내는 탄이 폐관 소식에도 차분해 보이자 윤경은 배신감을 느낀다. 수진의 기일에 납골당에 가지 않으려는 탄에게 윤경은 쌓여오던 화를 내지만 그날 밤 탄이 수진의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윤경은 생각이 많아진다. 그 후, 윤경은 태권도장에서 늘 들리던 피아노 소리의 존재를 탄이 이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태권도장이 행하게 정리되고 탄과 윤경은 떠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는다.



김강호 — 2000년 서울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학부 생활 내내 영화 음악을 공부하고 작업했다. 단편영화 <소우주>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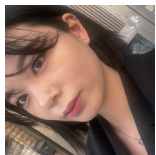
파랑의 파동

Wave of Blue

극영화 | 2025 | 13분 전체



수영 선수가 꿈인 정우는 청각 장애를 가진 엄마 재경과 함께 산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갈 기회가 찾아오지만 장애를 가진 엄마를 혼자 두기가 무서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김수빈 — 2002년 서울 출생. 숭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재학 중이다.

2024 <헌 신>

모두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가치봄영화제는 그 연장선에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어영화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수어영화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농인을 위해 기존 한글자막(CC)에 더해 수어통역 영상을 삽입함으로써, 더 많은 농인 관객에게 영화 관람의 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올해 수어영화 섹션에서는 장편 1편과 단편 3편, 총 4편의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장애인 가족과 함께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조용히 응시하는 <그녀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온몸으로 겪은 엄마의 카메라에 남겨진 사진을 소재로 한 <오월>과 함께 2023년 가치봄 제작지원작이었던 <천사와 드라이브>,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도 수어통역 영상을 더해 상영됩니다.

수어영화는 모두를 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더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공존하는 영화제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녀에게

극영화 | 2023 | 106분 12

Blesser



“내 아이는 오래 사랑받을 사람 ‘장애인(長愛人)’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뤄내고야 마는 정치부 기자 상연. 오랜 노력 끝에 기적처럼 쌍둥이 남매를 낳지만 누나보다 느리고 더디던 둘째 지우가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상연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맞닥뜨린다. 세상에 오직 장애를 가진 자식과 자신, 단둘뿐인 ‘장애라는 섬’에 갇힌 것만 같은 상연. ‘장애도’에서의 고립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기 위한 그녀의 길고 힘겨운 여정이 시작된다.



이상철 — <그녀에게>는 원작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의 마지막 챕터인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그녀에게’에서 출발하였다.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 그 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몽당연필로 눌러쓴 손 편지 같은 영화가 되길 바란다.

2021 <투빅맨>
2018 <속물들>
2014 <리듬선생>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

극영화 | 2024 | 31분 전체

Maru and My Friend's Wedding



비혼, 직장인, 장애인, 배우, 활동가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민아. 친구 현경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모인 날, 깜장 치와와를 만난다. 민아는 깜장 치와와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살아온 삶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귀여운” 마루, 오직 귀여움을 위해 인간세계에 귀여운 생명들을 제공하기 위해 견딘 시간을. “마루야, 지금 네게는 뭐가 보이니?”



이현빈 — 1988년 서울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2021년까지 거주, 2022년 군산으로 반려견 마루와 함께 이주하였다. 한국 사회의 ‘수치’의 영역에 가둬진 인물,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류세’적 관점과 작품 만들기 결합에 관심이 있다.

2014 <풍진>
2011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오월

May

극영화 | 2024 | 22분 전체



5월, 사진작가 민서는 어린 딸 은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기 위해 광주행 기차에 오른다. 오래된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떠난 이 여정은 단순한 추억 되새김이 아니다. 수첩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도청 앞, 민서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과거로 빨려 들어간 듯한 환영을 본다. 계엄군의 군화발에 짓밟힌 광주, 카메라를 든 젊은 엄마, 응급실을 가득 메운 희생자의 모습이 펼쳐진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날의 참상을 기록하던 사진기자였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세월을 넘어 흐르는 진실을 가슴에 안은 채 어머니의 묘를 찾는다. 그 후, 사진전에 걸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묻는다: “그날의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방성수 — 3D 콘텐츠 현장의 최전선에서 20여 년을 뛰며 픽셀의 언어로 이야기를 빚어 왔다. 어릴 적부터 영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고 광주예술고 미술과 시절, 고정관념을 탈피한 실험적인 미술작품을 시도하며 “언젠가 내가 상상하는 그림을 영상으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현장에서 쌓은 수많은 밤샘과 렌더 큐의 숨결은 결국 단편영화 <오월>로 응축되어 세상에 첫 빛을 비추었다.

2024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상무총정작전> 애니메이션

천사와 드라이브

Driving Day

다큐멘터리 | 2024 | 29분 전체



로사의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섬세한 손재주를 타고났음에도 재능을 펼칠 기회가 적었다. 그런 그가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표현하는 방식은 드라이브였다.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갖춘 그는 가족을 위해 언제든 기꺼이 운전석에 올랐다. 7년 전 어느 날, 그에게 또 다른 불치병이 찾아온다. 그의 불건강을 지켜보며 로사는 숨 가쁜 꿈을 꾸다. 언젠가 다시 아버지와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그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김로사 — 1997년 청주 출생.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을 졸업했다.

2020 단편 <저마다의 삶>

색인

감독

김강호	43
강은정	31
고은기	16
공병선	39
김늘아름	33
김로사	49
김수빈	44
김숙현	28
김유진	24
노영빈	29
박동진	13, 18
박상진	34
박성진	34
박재범	41
박호범	17
방성수	48
방준식	30
배진아	20
백진이	32
신재	22
신하연	40
오재형	21
이루리	38
이상철	46
이윤구	26
이현빈	47
이효정	19
정다은	35
정성준	13, 18
정용훈	23
조현서	37
주현민	27
추병진	15

작품

겨울의 빛	37
그녀에게	46
까칠한 강래씨	26
나는;	27
나의 자립 일지	15
달팽이 농구단	16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	47
모범상	17
봄의 언어	13, 18
부러지고 싶은 마음	19
사랑? 사랑, 사랑!	28
산행	38
새이와 도하	20
소영의 노력	21
소우주	43
안보영 프로젝트	29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30
영망이 흐른다	31
오래된 못	39
오월	48
우리가 만든 궤적	32
우리의 사랑	33
우리의 자리	34
원더	22
인피니티 챌린저	23
졸업사진	40
지금 만나러 간다	35
짱뚱이네 통황토	41
천사와 드라이브	49
탁란	24
파랑의 파동	44

제26회

가치봄영화제



발행

(사)한국농아인협회 가치봄영화제 사무국

프로그램 노트

서도은

디자인/인쇄

오롯디자인

주소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1층 1103호

T 02-461-2261~2 / 070-4355-7314

F 02-461-2651~2

pdflove@daum.net / www.pdf.or.kr

Organizer



Sponsor





CHAHONG *Ardor*



CHAHONG ROOM



CHAHONG ACADEMY



CHAHONG

CJ프레시웨이가 함께하는 맞춤 케어푸드

헬씨누리
HEALTHY NURI

소중한 사람을 위한 그 마음
건강하고 활기찬 미소로 이어지도록
CJ프레시웨이가 정성을 더해 전합니다



헬씨누리만의 건강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성 담긴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차별화된 상품



High

많이 먹어야
건강한 영양소는
더 많이



Low

적게 먹어야
건강한 성분은
더 적게



Easy

편하게
드시실 수 있도록
더 부드럽게

다양한 서비스



맞춤 식단 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매거진 제공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운영 트렌드
세미나 개최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고객센터 02-2149-6114



DALDACU

Chocolate & Sweet

맛있는 상상, 재미있는 초콜릿!
쇼콜라티에가 만드는 수제초콜릿 전문 브랜드 달다쿠입니다.

전라남도의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넉넉한 인심,
그 인심을 순천에서 달다쿠가
초콜릿에 온전히 넣어 보내드려요.



달다쿠 초콜릿 본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산길 120 1층 | 0507-1390-5500

THE BETTER WORLD

더바른세상



더바른세상

THE BETTER WORLD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THE DISABLED
ENTERPRISE



창업기업



소기업

K-네트워크의 힘은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높은 기준을 따라
빠른 성장을 따라
큰 기대에 따라
대한민국과 함께
KT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앞서갑니다

KT는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끊김 없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INDIEGROUND



www.indieground.kr

indie
ground kofic
영화진흥위원회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8길 27, 엠플라자 5층 | Tel 02.757.0999 | E-mail indieground@indieground.kr
Facebook @indieground.kr | Instagram @indieground.kr | Youtube.com/indieground_kr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는 최고의 시설을 기반으로 진일보하며
MZ세대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경험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Immersive 3S

Screen, Sound, Space 특화관 고도화

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영화의 본질에 완전히
몰입이 가능한 시네마틱 공간, 새로운 경험 요소를 도입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곳에서 콘텐츠로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Creative Contents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는 컬처 스테이지

영화관 공간과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을 제공하며,
라이브 콘서트 실황, 스포츠 중계, 공연 등 얼터너티브 콘텐츠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Space

최신티렌드를 즐기며 소통하는 복합문화 공간화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콘텐츠 경험 확대와 트렌드 선도를 위한
공간의 구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유니크한 체험을 제공하며 진화된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내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당사자 대표 단체로서, 지난 2000년 국내에
화면해설을 도입시킨 후 현재까지 화면해설과 관련된 정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미디어진흥원을 직접 설립하여 제작표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화면해설의 품질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치봄 영화



가치봄은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화로, 'WITH(함께)'와 '가치', '봄(보다)'의
의미를 담아 '함께 보는 것이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가치봄 영화 제작
(2012년부터 현재까지 720여편 이상 제작)
- 가치봄 VOD 제작
(LG U+, ZILITV, SK Btv, 훌초이스,
KT Skylife 서비스 중)
- 전국 가치봄 상영회 개최

가치봄 플러스



시각,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보조단말기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영화관에서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동시관람 장비도입 및 교육
- 가치봄 영화 제작
- 전국 동시관람 상영회 개최

가치봄 영화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장
경쟁 장애인 영화제로, 출품작 모두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제공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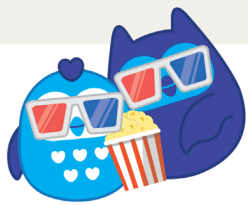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kbu.adcenter>



<https://blog.naver.com/kbuad1999>



<https://www.instagram.com/kbuad1999/>



영화관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포함해, 문화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영상이 포함된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형별 설명

1

한글자막CC란?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한글자막CC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CC
이름, 대사, 소리, 배경음악 등 영화의 소리정보를 텍스트로 표기한 자막

2

가치봄영화란?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한글자막CC + 화면해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AD
행동, 상황 등 영화의 시각정보를 성우가 해설하는 음성

3

수어영화란?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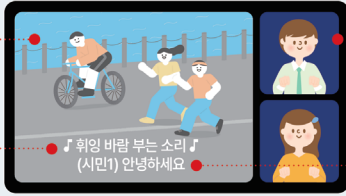
한글자막CC + 수어통역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모든 대사를 수어로 표현하는 수어통역

수어영화 화면비율 예시



영화장면



수어통역

소리정보

♪ 휘잉 바람 부는 소리
(시민1) 안녕하세요

대사표기

VOD 서비스 제공

GENIE TV

지니TV

Btv

B tv



U+모바일tv

SkyLife

SkyLife



홈초이스

가치봄영화제

2000년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가치봄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참여한 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약 30여 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입니다.

- ☑ 전 작품 무료 상영
- ☑ 한글자막+화면해설 포함된 가치봄버전 제작
- ☑ 2024년부터 수어통역 영화 상영



PDF경쟁 시상 내용

* 영화제 운영상황에 따라 시상 카테고리 및 명칭 등 변동 가능



대상

3,000,000원
(1편)



최우수상

2,000,000원
(1편)



우수상

1,000,000원
(1편)



장애인미디어상

1,000,000원
(1편)



관객상

500,000원
(1편)

사전제작지원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참여하는 영상물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사전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 직접 참여(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 ☑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장애 소재 작품
- ☑ 연 2편 선정 / 편당 300만원 지원

* 영화제 운영상황에 따라 시상 금액 변동 가능



수어 영상 전문가, 한국수어자막방송센터

모든 콘텐츠, 수어로 소통의 문을 엽니다.



한국수어자막방송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산하 센터로써
의료, 문화,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콘텐츠에
정확하고 생생한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원스톱 진행

영상 소스 없어도 가능



기존 영상에
수어통역 삽입

영상 소스 제공 시

모두를 위한 소통의 영상,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TEL 02-2038-3189 E-mail pdflove@kakao.com



가치봄영화제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가치봄영화제, TV에서 만나요!

BTV | GENIE TV 상영 중!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1층, 1103호

070-4355-7314